

# 『효경간오』, 『효경대의』, 『효경언해』의 간행본과 그 계통 연구

옥영정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학부 부교수, 서지학 전공  
gabinja@aks.ac.kr

- I. 머리말
- II. 한문본 『효경간오』, 『효경대의』의 간행본
- III. 『효경간오』, 『효경대의』의 구성체제와 내용 비교
- IV. 『효경언해』의 간행본
- V. 맺음말

## I. 머리말

『효경(孝經)』은 『효경간오(孝經刊誤)』, 『효경언해(孝經諺解)』, 『효경대의(孝經大義)』 등을 통칭하는 말이기도 하고, 『효경』이라는 제목을 지닌 문헌의 고유 서명(書名)이기도 하다. 공자(孔子)가 그의 제자 증자(曾子)와 더불어 문답한 것 중에 효도에 관한 것을 송나라 주희(朱熹)가 간오(刊誤)한 것이 『효경간오』이며, 후에 이를 원나라 동정(董鼎)이 주해한 책을 바탕으로 명나라 서관(徐貫)이 간행한 판본을 『효경대의』라고 한다. 서지학적 연구인 이 글의 분석 대상은 우리나라에서 널리 간행되고 영향을 준 『효경(간오)』, 『효경언해』, 『효경대의』이다.

초기의 『효경』에는 고문(古文)과 금문(今文)이 있다. 고문은 22장으로 구성되었고, 노공왕(魯恭王)에 의해 공자의 구택(舊宅) 벽(壁)에서 발견된 것이다. 금문은 18장으로 되어 있고 안지(顔芝)에 의해서 보관되다가 아들 안정(顔貞)이 조정에 바친 것이다. 주희는 『고문효경(古文孝經)』 22장을 경문(經文) 1장과 전문(傳文) 14장으로 구성하면서 223자를 삭제하여 『효경간오』를 지었다.

『효경간오』의 편찬 배경에는 당시에 유통되었던 금문·고문 『효경』에서 공자와 증자의 문답 내용이 소략하고, 여러 책에서 인용한 것이 뒤섞여 있음에도 인용된 부분까지 공자의 말이라고 믿는 당시 상황을 비판하고, 『효경』이 성인의 말씀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경(經) 1장과 전(傳) 14장의 체제로 재편하여 저술하였다.<sup>1)</sup>

『효경』에 대한 그동안의 학술적 논의는 주로 경학, 사상사, 교육사적 측면에서 다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효경간오』는 주자의 효 인식을 바탕으로 조선후기 유학의 성격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연구되기도 하였고<sup>2)</sup>, 최근에는 한국의 효 사상에 대한 철학적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다룬 역주본이 간행되기도 하여 한국의 효에 대한 전반적 이해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sup>3)</sup> 하지만 간행된 판본을 중심으로 다루는 형태서지학적 측면에서 그 간본의 계통을 다루고 있는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1) 정호훈, 「朱子 『孝經刊誤』와 그 성격」, 『동방학지』 116(2002), 80-81쪽.

2) 정호훈, 위의 논문.

3) 김용욱, 『효경 한글역주』(통나무, 2009).

『효경』의 판본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조선시대에는 원나라 옹화(熊禾)의 서(序)와 명대(明代) 서관(徐貫)의 발(跋)이 있는 판본이 널리 유통되었고, 동정이 주석·편집한 책이 통용되었다는 것이다. 즉, 동정의 『효경대의』가 널리 유통되어 이 시기의 『효경』은 곧 『효경대의』를 의미하였다는 것이 그동안 효경에 대한 서지적인 인식이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존본으로 다양한 판본이 시기를 달리하여 남아 있고, 유통이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러웠던 『효경간오』가 꾸준히 간행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효경대의』도 여러 판본이 남아 있으며, 특히 한글자료로 남은 왕실 교육용 서책에 대해서는 서지적 특징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은 『효경』과 그 언해본의 국내 간본과 계통에 관하여 서지학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서 관련 분야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책의 간행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배경적 논의와 구성체제의 특징을 검토하고 동시에 실물로 남아 있는 판본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 II. 한문본 『효경간오』, 『효경대의』의 간행본

우리나라에서 『효경』의 초기 기록으로는 682년(신문왕 2)에 국학의 교과서로 『주역』, 『상서』, 『모시』, 『예기』, 『춘추좌씨전』, 『문선』, 『논어』, 『효경』 등이 있었다는 것과, 788년(원성왕 4)에는 독서삼품과의 시험과목으로 『오경』, 『삼사』, 『예기』, 『춘추좌씨전』, 『문선』, 『논어』, 『효경』 및 『제자백가서』 등이 사용되었던 사실이 『삼국사기』에 보인다.

고려 959년(광종 10)에는 사신을 주나라에 보내 별서효경(別序孝經) 1권, 월왕효경신의(越王孝經新義) 8권, 황령효경(皇靈孝經) 1권, 효경자웅도(孝經雌雄圖) 3권을 주었으며<sup>4)</sup>, 고려 1056년(문종 10) 8월 19일에는 비각 소장의 구경(九經), 한서(漢書), 진서(晉書), 당서(唐書), 논어(論語), 효경(孝經), 자사제가문집(子史諸家文集), 의(醫), 복(卜), 지리(地理), 율산(律算)의 여러 서적을 제학원(諸學院)에 반사(分賜)하여 두게 하고,

4) 『高麗史』 卷2 世家2 光宗 10年. “…… 春遣佐丞王兢佐尹皇甫魏光如周獻名馬織成衣襖弓劍 秋遣使如周進別序孝經一卷越王孝經新義八卷皇靈孝經一卷孝經雌雄圖三卷…….”

유사(有司)에 명하여 각각 1본을 인행(印行)하여 보내게 한 기록도<sup>5)</sup>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상세한 기록이 없어서 이 당시의 효경이 어떠한 계통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고려시대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경』으로 국내에 알려진 것은 흥무 6년(1373)의 발문이 있는 목판본 『효경』이다.<sup>6)</sup> 이 책은 이재영에 의해서 처음 소개된 것으로<sup>7)</sup> 국내에 현전하는 판본 중 간행시기가 가장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책이지만 현재는 그 복사본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 이재영의 서지적 분석 내용을 토대로 요약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수제는 『효경』, 권말제는 『효경찬주(孝經纂註)』로 되어 있다. 임화보(林華甫)가 찬주임을 표시하였고, 앞부분에는 연우 3년(1216) 임화보의 자서(自序)와 연우 4년(1217)의 조씨진덕재(曹氏進德齋)의 서문이 있으며 그 뒤에 당 현종의 서문이 있다. 이어서 공자에서부터 현종에 이르는 효경류의 저자 계통을 도표로 나타내고 있다. 다음에는 『금문효경』을 중심으로 한 여러 주석서의 저자와 서명을 적고 있으며, 『고문효경』과 『금문효경』의 구성 차이를 비교하고 있다. 이어서 본문이 시작되는데 각 장의 제목 다음에 그 장에 해당하는 『효경정의(孝經正義)』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있으며, 『효경』의 각 구절을 쓴 후에 작은 글자로 두 줄씩 주를 달았다. 뒷부분에는 「이천선생장설병도(伊川先生葬說并圖)」와 「한위공참용고금가제식(韓魏公參用古今家祭式)」이 합철되어 있다. 권말에는 당시 영해군수인 한충호(韓冲浩)가 1373년(공민왕 22)에 쓴 발문이 있는데<sup>8)</sup> 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백소(白瑫)가 이 『효경』을 13장까지만 가지고 있었는데 전부령(前副令) 김거기(金居琪)에게 나머지 5장을 얻어 합치고 좌랑(佐郎) 남영신(南永伸)의

5)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10年 8月 戊辰, “西京留守報 京內進士明經等諸業舉人所業書籍率皆傳寫字多乖錯請分賜秘閣所藏九經漢晉唐書論語孝經子史諸家文集醫卜地理律算諸書置于諸學院 命有司各印一本送之.”

6) 이 책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형태사항으로 邊欄은 四周單邊이며 版口는 上下大黑口로 되어 있다. 어미는 上下下向黑魚尾이고 系線은 없다. 행자수는 11行 22字이며 작은 글자로 두 줄씩 註가 있다. 半匡의 크기는 세로가 18.4cm, 가로가 12.3cm이다.

7) 이재영, 「조선시대 효경의 편찬과 간행」, 『書誌學研究』 32집(2008. 12)

8) 孝經十八章自始至末皆以忠孝爲 言士君子所當先學也今知州姜公既受命至任簿冗之暇輒首古□□□八溪守白公瑫所遺本經僅十三章恨其有逸後於前副令金公居琪家又得所遺五章乃合爲今書繼有前佐郎南公□□仲示以先儒喪葬祭式詳校三家之書出自一轍故并附卷末此□公之□感所致□公遂□傾□□□板行□□□□□□□□□□真補學□可謂大矣予於□乎敬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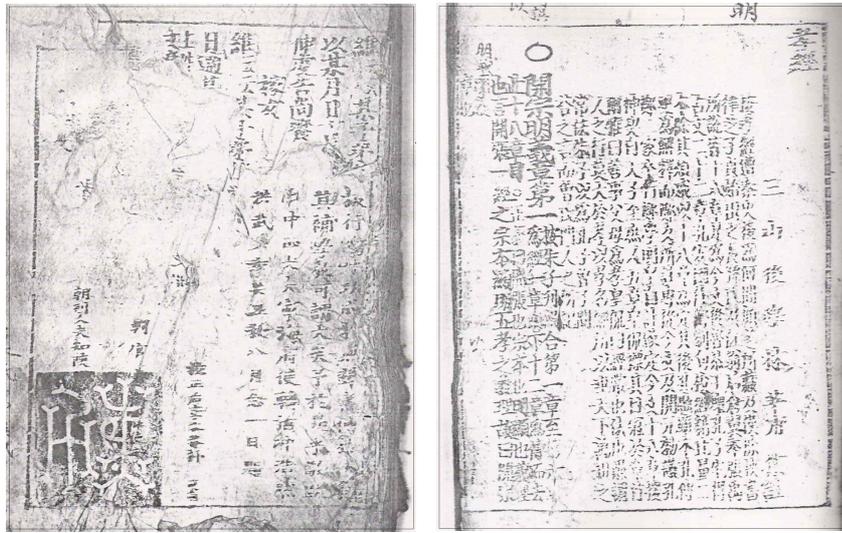


그림1-홍무 6년(1373)발 『효경』 권수제면과 발문(이재영 논문에서 재인용)

제식(祭式)을 부록으로 붙여 간행하였다고 한다. 마지막에는 이 책의 제작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sup>9)</sup> 있다. 판의 마모가 심하고 글자가 이지러진 부분이 많은 후쇄본이지만 고려 말 이전에 인쇄된 것으로 보인다(그림1 참조).

### 1. 전주본 『효경간오』의 계통과 조선간본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효경』과 관련한 『실록』의 기사 중에 1423년(세종 5)에 서적의 수가 적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필사하여 보고 있으므로 주자소에서 『노걸대』, 『박통사』, 『전한서』, 『후한서』, 『직해효경(直解孝經)』 등을 인출(印出)하게 한 기록이 있다.<sup>10)</sup> 1429년(세종 11)에는 『소학』은 많이 보지만 『효경』은 그렇지 않으므로 경연(經筵)의 『구해효경(句解孝經)』을 내어 주자소로 하여금 250질을 간행하여 반포하게 하였다.<sup>11)</sup>

9) □中正大夫寧海府使韓□冲浩誌 洪武六年癸丑秋八月忘一日題 校正后□□□朴 書判官 □朝列大夫知陝川.  
 10) 『世宗實錄』 5年 6月 壬申條. “禮曹據司譯院牒呈啓 老乞大 朴通事 前後漢 直解孝經等書 緣無板本 讀者傳寫誦習 請令鑄字所印出 從之.”  
 11) 『世宗實錄』 11年 3月 戊辰條. “小學講於科舉之時 故儒者皆不得已而讀之 若孝經則世之初學 專不讀習 請出經筵句解孝經刊行 以教初學 上曰 然 命左代言許誠曰 可令鑄字所印出二百五十 頒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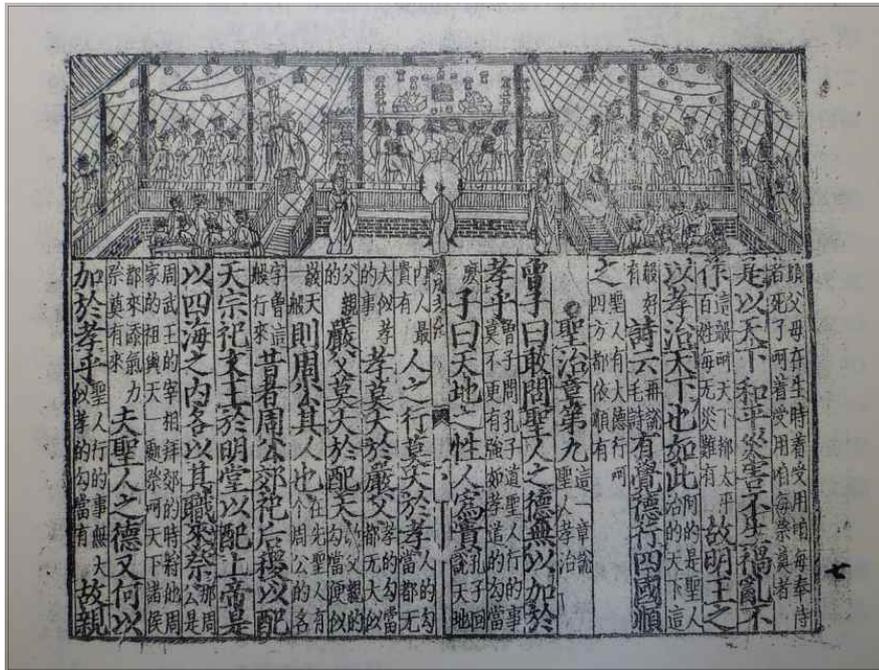


그림2-원간본(元刊本) 『직해효경』(宮紀子, 『モンゴル時代の出版文化』, 25쪽에서 재인용)

1423년(세종 5)에 언급한 『직해효경』이 어떤 것인지는 국내에 실물이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근래에 중국에서 발간된 『원대한어자료집(元代漢語資料集)』에 『직해효경』이 수록되었고, 국내 연구진이 이에 대한 언어적 특징을 소개한 바<sup>12)</sup> 있다. 이 책의 유일한 원나라 간본으로 알려진 것이 일본의 개인소장본으로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일본의 연구자에 의해서 실물사진이 공개되고 출판문화사적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sup>13)</sup> 그림2는 일본의 연구자에 의하여 소개된 원간본(元刊本) 『직해효경』의 사진이다. 『신간전상성재효경직해(新刊全相成齋孝經直解)』 또는 『성재효경(成齋孝經)』으로 알려진 이 책은 세종 때의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국내에 전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국내에도 이를 번각한 책이나 원간본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물자료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직해류 교재는 중국어 경전을 구어체 한어로 풀이한 책이고, 『직해효경』도 주로 사역원의 교재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12) 정승혜·난권희·양오진, 「원간노걸대와 직해효경의 언어」, 『국어사자료연구』 제2호 (2001. 2).

13) 『直解孝經』의 저자 貫雲石(小雲石海涯)은 위구르인으로 원나라 우루스시대의 대표적인 散曲 작가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宮紀子, 『モンゴル時代の出版文化』(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2006).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효경』과 수집 목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서지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본격적으로 조선시대에 유통된 『효경』은 주희의 『효경간오』와 이를 바탕으로 한 동정의 『효경대의』이다. 주석이 있는 『효경대의』에 대한 기존 연구에 비해 『효경간오』의 유통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지학적 연구가 부족하였다. 효경을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해제나 연구서에는 『효경간오』의 국내유통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으며, 조선후기에 주로 유통된 『효경대의』가 곧 『효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된 측면이 있다.

『효경』의 간행과 관련해서는 1429년(세종 11) 3월에 판부사(判府事) 허조(許稠)의 계청으로 주자소로 하여금 250질을 인쇄, 반포하도록 하여<sup>14)</sup> 동년 5월에 반사한 기록이 있다.<sup>15)</sup> 하지만 이 책의 현존본은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간행 기록이 남아 있는 현존본 중 이른 것으로는 1475년(성종 6) 전주부윤 윤효손(尹孝孫, 1431-1503)<sup>16)</sup>이 전주에서 간행한 것이 있다.<sup>17)</sup> 이는 그 책 마지막 장의 “성화십일년을미오월일전주부개간(成化十一年乙未五月日全州府開刊)”이라는 간기로 확인된다. 윤효손의 발문에 의하면 그 이전에 전주에 장관(藏板)되었던 판본이 마모되어 다시 조맹부의 송설체 『증도가(證道譚)』를 바탕으로 글자를 써서 판각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조맹부의 『증도가』는 당시에 널리 쓰인 서체로써 탐본으로 제작되어 많이 유통되었다. 윤효손도 1490년 정조사(正朝使)로 명나라에 다녀오

14) 『世宗實錄』 11년 3월 22일(戊辰). “判府事許稠啓 孝經 小學 皆初學所當先習之書也 而小學講於科舉之時 故儒者皆不得已而讀之 若孝經則世之初學 專不讀習 請出經筵句解孝經 刊行 以教初學 上曰 然 命左代言許誠曰 可令鑄字所印出二百五十秩頒行.”

15) 『世宗實錄』 11년 5월 20일(乙丑), “頒賜 孝經 于東班集賢殿應教以上 西班僉摠制以上.”

16) 조선시대 『효경』 간행의 주도적 인물로 처음 등장하는 윤효손은 조선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南原이고 자는 有慶, 호는 楸溪이다. 아버지는 知淳昌郡事 尹處寬, 아들은 관찰사 尹止衡이다. 1453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승문원부정자에 보임되고, 1455년 성균관저작이 되어, 原從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1472년 通禮院左通禮로 전임되고 佐理原從功臣에 녹훈되었으며 『經國大典』, 『五禮儀註』를 수찬하였다. 1473년 호조참의·예조참의를 역임하고 전주부윤에 제수되었으며, 1476년 공조참의로 승진되고 이듬해에 형조참판으로 옮겨졌다가 곧 경상도관찰사로 전직되었다. 남원의 方山書院에 제향되었으며, 시호는 文孝이다.

17) 이 책의 다양한 판본과 실물자료 열람에는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문헌실의 최경훈 선생으로부터 많은 도움이 있었다. 주희의 주석서에 대한 그의 논문 「조선전기 주자저술의 간행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42(2009. 6)에도 『효경간오』와 관련된 자료를 언급하였으며, 이 글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지면을 빌려 최 선생께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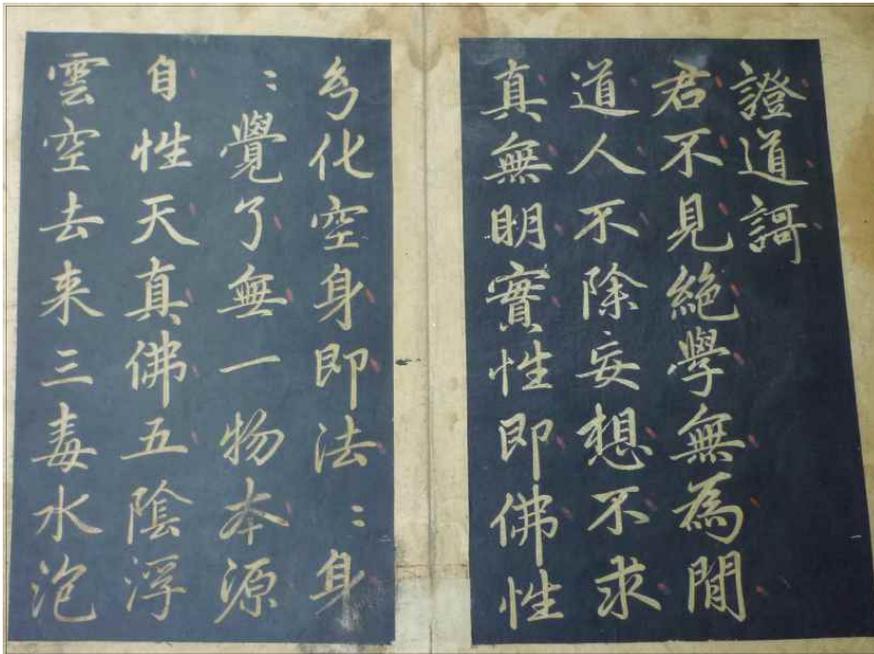


그림3- 조맹부의 『증도가(證道詞)』 탐본(楊本)



그림4-1477년(성종 8)의 간기가 있는 전주 간본(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

면서 『활민대략(活民大略)』, 『속자치통감(續資治通鑑)』,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등의 책과 조맹부의 족자 1첩을 가지고 왔다. 실제 남아 있는 탐본 증도가(그림3)와 전주판(그림4)의 서체를 비교해보면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윤희손은 1477년(성종 8)에 경상감사로 부임하여 전주부윤으로 있을 때 간행한 책을 사용하여 선산도호부사 김종직에게 다시 판각하게 하였다.<sup>18)</sup> 『고사촬요』의 각 지방 책판조에는 선산을 비롯하여 영남과 호남지방의 주요 군현에서 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책에 대하여 이인영은 그의 『청분실서목』에서 언급하기를 “성종 6년 을미 전주 각본이다. 사주단변, 무계, 매반엽 4행 8자, 광곽 길이 25.5리, 너비 17.0리, 흑구 혹은 백구이다. 권말에 성화 11년 을미 5월일 전주부 개판 간기 및 성화 11년 을미 부윤 윤희손 발이 있는데, 요약하여 이르길 완산에 옛날에 새겼던 판이 있는데 지금은 이미 판이 닳아 마침내 조송설의 증도가의 글자를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본뜨게 하였다. 혹 일을 처리하는 겨를에 친히 임무를 더하고 만약 글자의 점화를 구하는데 부족하면 보충하였다. 비록 아직 천진을 전하는 데 능하진 않더라도 또한 혹 비슷하겠는가. 만일 책을 만듬에 공인에게 명하여 목판을 새겨 학문에 뜻을 둔 자가 그것을 얻어서 책을 읽어 효를 일으키고 글자를 익혀 유예하니라. 생각건대 융경을해자본 고사촬요 전주책판에 이 책이 있다”<sup>19)</sup>고 하여 이 책의 서지적 특징과 간행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전주 간본은 이후 다시 남원부에서 중간(重刊)되었는데, 남원 간본에는 “세재경인십이월일남원부중간(歲在庚寅十二月日南原府重刊)”이라는 간기와 함께 저본이 되었던 전주 간본에 수록된 윤희손의 발문과 간기가 판각되어 있다. 이는 전주판을 저본으로 삼고 다시 새기면서 원래 간기까지 그대로 새긴 것이다. 경인년이 언제인지 확정짓기 어려운데 판식의 형태로 보았을 때, 17세기 이후에 판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책의 판식은 사주단변, 반곽 24.8×15.5cm, 유계, 4행8자, 상하내향2엽 또는

18) 宣祖 36년(1603) 興海 刊本에 수록된 金宗直의 跋文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右孝經刊誤乃子朱子依大學經傳而爲之分章者惜乎世之人概諸蒙幼之學謾不致意也吾方伯帶方尹相公嘗尹完山簿書之隙手摹趙松雪證道歌字以□其書成化丁酉春述節于茲□命弊府用完山本付板以刊之由是湖嶺之南家□有是□不數年殆將偏于海東□之者非但博其義而兼習其字吁其利不亦博哉 且松雪筆□傳于世者率皆佛書及屏簇耳今乃托於聖經賢傳以垂耀無窮焉抑豈非子昂之一華耶 是歲中秋善山都護府使金宗直謹跋.”

19) 李仁榮, 『淸芬室書目』. “成宗六年乙未 全州刻本 四周單邊 無界 每半葉四行行八字 匡郭長二五.五 浬廣一七.0 浬 黑口或白口 未有 成化十一年乙未五月日 全州府開板刊記 及 成化十一年乙未 府尹尹孝孫跋 略云 完山舊有刻板 今已剝缺 遂將趙松雪證道謔字囑予以模之 或於治事之暇 親加臨模 其不足若干字求其點畫而補之 雖未能盡傳其天真 亦或仿佛乎 萬一書成 命工鉅梓志學者 得之讀其書而起孝 習其字而游藝 按隆慶乙亥字本 攷事撮要 全州冊板有此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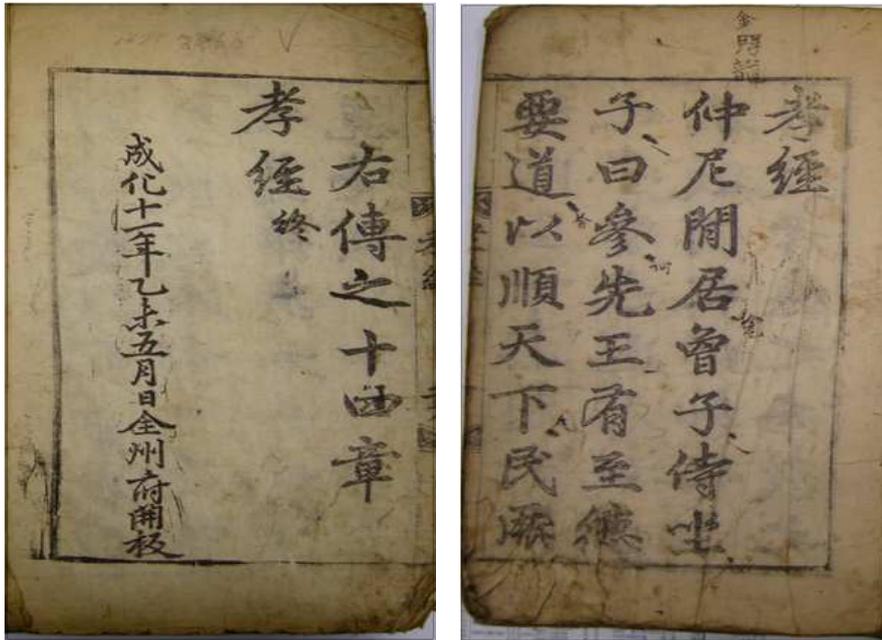


그림5-경인년 남원부 중간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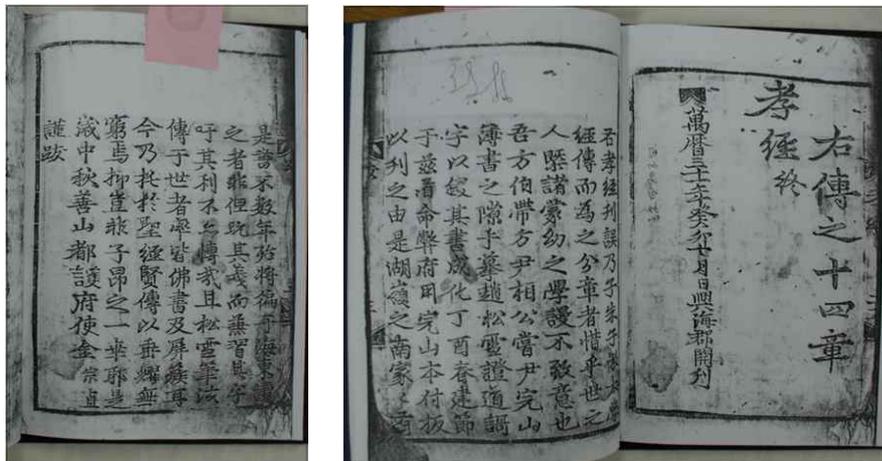


그림6-1603년(선조 36) 흥해에서 판각된 『효경』과 김종직 발문

3엽화문어미이다(그림5 참조).

또한 경상도 흥해(興海)에서 간행되어 개인 소장으로 전하는 1603년(선조 36)의 간본도 있다. 이 책의 권말에는 “만력삼십일년계묘칠월일흥해군 개간(萬曆三十一年癸卯七月日興海郡開刊)” 이라는 간기 다음에 1477년(성종 8)에 경상도 선산(善山)에서 간행할 때 작성한 김종직의 발문이 있다. 김종직이 선산에서 간행한 책은 아직 현전본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남아 있는 발문을 통해서 그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대체로 전주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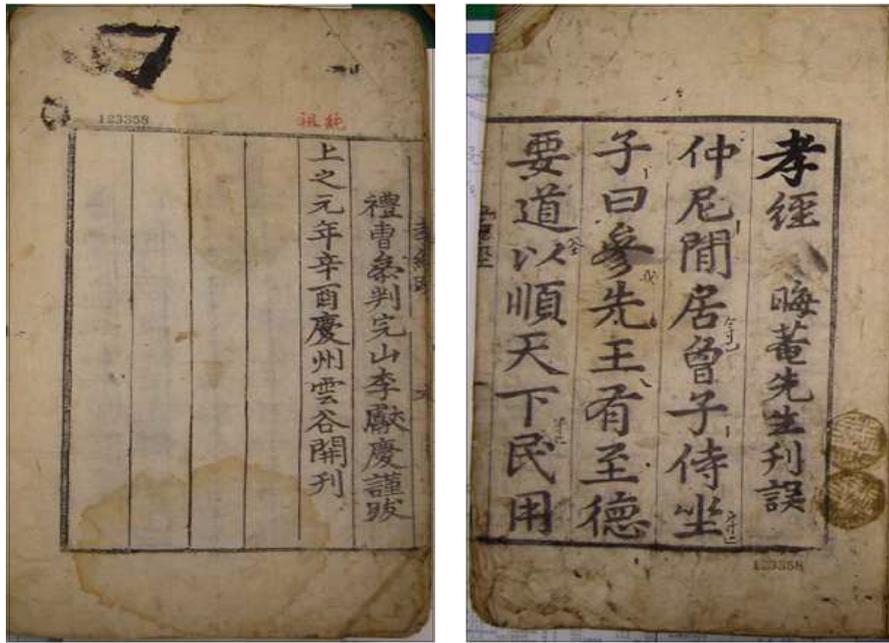


그림7-1801년(순조 1) 경주 운곡서원 간본의 권수제와 간기

큰 차이 없이 동일한 판식과 내용을 지녔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림6 참조).

한편 1801년(순조 1)에는 경주 운곡서원(雲谷書院)에서도 판각이 이루어졌다(그림7 참조). 저본의 윤효손, 김종직의 발문과 1789년(정조 13)의 이헌경(李獻慶)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그 발문에 의하면 이전에 김종직이 선산에서 간행하였고, 이후 흥해에서도 간행이 이루어졌으며, 이번에 경주에서 권종락(權宗洛) 등이 이를 간행하고자 하여 발문을 부탁받았음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효경”의 권수제 아래에 “회암선생간오(晦菴先生刊誤)”라는 일종의 부제를 붙이고 있다. 이는 동일한 판각으로 이 책의 바탕이 되었던 기존의 『효경』이 결국 『효경간오』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특별한 판본으로 『효경』에 한문 구결이 함께 판각된 간본도 있다(그림8 참조). 간기는 없으며 한문구결을 목판에 함께 새겨서 인쇄한 책으로 기존의 4행의 판식이 아닌 5행이고, 각 항의 글자 수도 8자가 아닌 10자이다.

이상의 간본을 종합하면 조선조 한문본 『효경』이 『효경간오』임을 알 수 있다. 윤효손이 1475년(성종 6)과 1477년(성종 8)에 전주와 선산에서 간행한 이후 이를 저본으로 여러 지방에서 간행이 이루어진 것이다. 1521년(중종 16)에는 대자(大字)로 인쇄된 『효경』 30건과 소자(小字)로



그림8-한문 구결이 함께 판각된 간본

인쇄된 『효경』 30건을 문무루(文武樓)에서 찾아 대내(大內)로 들이게 하였는데, 중자(中字)로 인쇄된 책만 있으므로 대자로 30건을 인출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소자로 된 판본도 30건을 인출하도록 하였다.<sup>20)</sup> 또한 『효경』의 간기를 통해 1530년(중종 25)에 남원부에서, 1475년(성종 6)에 전주부에서 개판한 판본을 중간하였다<sup>21)</sup>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에는 『효경』을 간행하였다는 기록이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조선전기 『고사촬요』의 기록을 살펴보면 전주 외에도 경주·금산·보성·수안(遂安)·회양(淮陽)·안동·정읍·삼척·나주·옥과·평양·거제·영덕·회령 등 14개 군현 이상에서 책판을 소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효경간오』는 윤효손에 의해서 전주와 선산에서 초기 간행이 이루어지고, 그 주변 지역인 전라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이 책을 저본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후기에는 청주(『三南所藏冊板目錄』), 태인(『各道冊板目錄』) 등지에 책판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조선후기의 서목에는 주로 원나라 동정이 증주(增註)한 『효경대의』라는 서명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는 기존의 『효경간오』가 16세기 말 『효경대의』 간행 이후 대부분 사라지고<sup>22)</sup> 『효경대의』로 바뀌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20) 『中宗實錄』 16年 2月 丁亥條, “昨日入內孝經乃中字 而非大字也 其令有板本處 三十件急速印出 且小字孝經三十件 并旁求印納 可也.”

21) 同書 卷末刊記.

22) 興海 간본, 慶州 雲谷書院 刊本 등이 남아 있었으므로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 2. 『효경대의』 판본 계통의 두 갈래

조선시대에는 주자의 『효경간오』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하여 동정이 증주한 『효경대의』도 함께 전래, 유통되었다. 간본의 형태로 보면 『효경대의』의 본문 글자를 대자로 인쇄한 경우와 중자로 인쇄한 경우의 두 갈래로 구분되고 인쇄에 쓰인 활자명칭으로 구분해본다면 효경대자본 계통과 훈련도감자본 계통, 정유자본 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구성 내용은 큰 변화가 없으나 판식이 각 활자마다 달라서 중자로 인쇄한 책을 임의로 구분해본 것이다.

### 1) 효경대자본(孝經大字本) 계통

『효경대의』는 동정이 주석·편집한 책으로 원대(元代)의 학자 옹화의 서와 명대의 학자 서관의 발, 그리고 1589년(선조 22)의 유성룡 봉교발이 있는 판본이다. 1590년(선조 23)에 효경대자(孝經大字)와 을해자체경서자(乙亥字體經書字)로 처음 인출되었고 이후로 이를 번각한 목판본이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다. 효경대자는 윤병대에 의해서 처음 이름 붙여진 목활자로<sup>23)</sup> 『효경대의』의 권수제와 경(經)의 정문(正文)에만 쓰인 것이다. 함께 쓰인 을해자체경서자는 1586년(선조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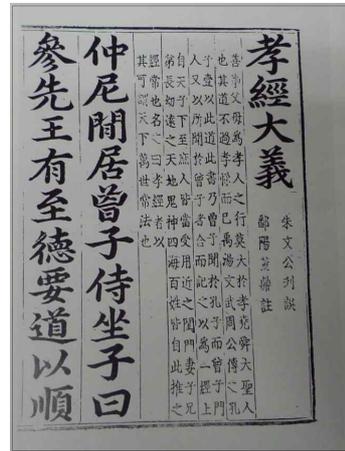


그림9-孝經大字本 『孝經大義』(천혜봉, 『한국서지학』, 1993, 437쪽에서 재인용)

이후로 국역경서의 교정을 위해 교정청을 설치하고, 1587년(선조 20)부터 1590년(선조 23)까지 각종 경서 언해를 찍는 데 사용한 금속활자이다. 1590년(선조 23)에 『효경언해(孝經諺解)』와 합부(合部)되어 사헌부 장령 장운익(張雲翼)에게 반사되었다.<sup>24)</sup> 한문본과 한글본을 동시에 1책으로 간행한 것이다. 일본 존경각에 1부 남아 있고(그림9 참조) 국내 현존본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논고를 준비하는 과정에 국내의 성암고서

23) 윤병대, 「孝經大義 大字考」, 『도협월보』 v. 15 no. 10(1974. 10), 12-17쪽.

24) 일본 존경각 소장본 내사기: 萬曆十八年九月日 內賜司憲府掌令張雲翼孝經大義諺解合部一件 命除謝恩 右副承旨臣李(手決).

박물관 소장본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孝經大義(1-256)

朱熹(宋) 訂, 董鼎(元) 註, 中字再鑄甲寅字版, 宣祖 23(1590) 刊.

1冊(56장) 四周雙邊, 半郭 24.7×17.1cm, 有界, 半葉 10行 19字, 註雙行, 內向3葉花紋魚尾, 36.1×23.1cm, 線裝.

序: 歲在乙巳(1305) 陽復之月前進士武夷熊禾序時大德之九年也.

跋: 成化二十二年(1486) 歲次丙午秋九月甲子 [...] 淳安徐貫謹識.

印記: 宣賜之記.

內陽記: 萬曆十八(1590) 九月日 內賜行副護軍朴世賢孝經大義諺解合部一件命除謝恩.

紙質: 楮紙.

備考: 朱文公作孝經刊誤以古文定為經一章, 傳十四章, 合一千七百八十字內刪去二百二十三字.

목록의 판본사항에 중자재주갑인자판(中字再鑄甲寅字版)이라 기술되어 있지만 이는 을해자체경서자인 것으로 보인다. 이 목록을 작성할 때는(1975년 9월 발행) 경서자의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고, 당시 이 활자 인본을 재주갑인자 인본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호군(副護軍) 박세현(朴世賢)에게<sup>25)</sup> 반사한 날짜와 내사기의 형식이 장운익에게 내린 기록과 같고 서책의 형태적 특징도 거의 같다. 형태사항 중에 행자수(行字數) 10행 19자가 존경각본 10행 18자와 다른데 이는 존경각본 목록 작성 시의 단순한 착오로 보인다. 존경각본 영인자료에는 모두 10행 19자임이 확인된다.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본이 1책 56장만 남아 있다는 것인데 이는 한문본만 남아 있고 한글본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실물 확인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이후에 번각되어 지속적으로 간행, 유통되는데, 동일한 계통으로 1737년(영조 13)에 시강원에 반사한 책과 1803년(순조 3)에 태인(泰仁)에서 전이채(田以采), 박치유(朴致維)에 의하여 판각된 것이 대표적이다. 태인본은 방각본으로 널리 유통된 책이며, 권말에는 “송정기원후계해십월일태인전이채박치유재(崇禎紀元後癸亥十月日泰仁田以采朴致維

25) 박세현은 무안박씨로 1543년 계묘식년시 병과 2등으로 합격한 인물이다.

梓)의 간기가 있다.

## 2) 훈련도감자본(訓練都監字本) 계통

훈련도감자본 계통은 경문이 대자로 간행된 것과 달리 중자로 간행된 것으로 행자수가 10행 16자이다. 가장 이른 것은 17세기 초 경오자체 훈련도감자본으로도 간행된 것이며(그림10 좌) 이후 이를 바탕으로 번각본(그림10 우)도 만들었다. 번각본 제작 당시의 기록으로 『승정원일기』에는 책자로 만든 『효경대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승정원의 계문에서 나라에서 쓸 『효경대의』 200건은 전국에 나누어 보냈고 400건은 이미 책자로 만든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고, 이를 반사하라고 전교한 내용을<sup>26)</sup>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 다음달 19일에 반사를 위한 어보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sup>27)</sup> 이때 반사된 책으로 현전하는 것이 1631년(인조 9) 10월에 태백산과 오대산사고, 강화 등에 반사한 책으로(奎中 1819, 奎中 1820, 古 1328-3)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남아 있으며 모두 경오자체 훈련도감자를 번각한 목판본이다.

한편 중자본 계열 중에는 개인 소장자의 목활자본으로 남은 책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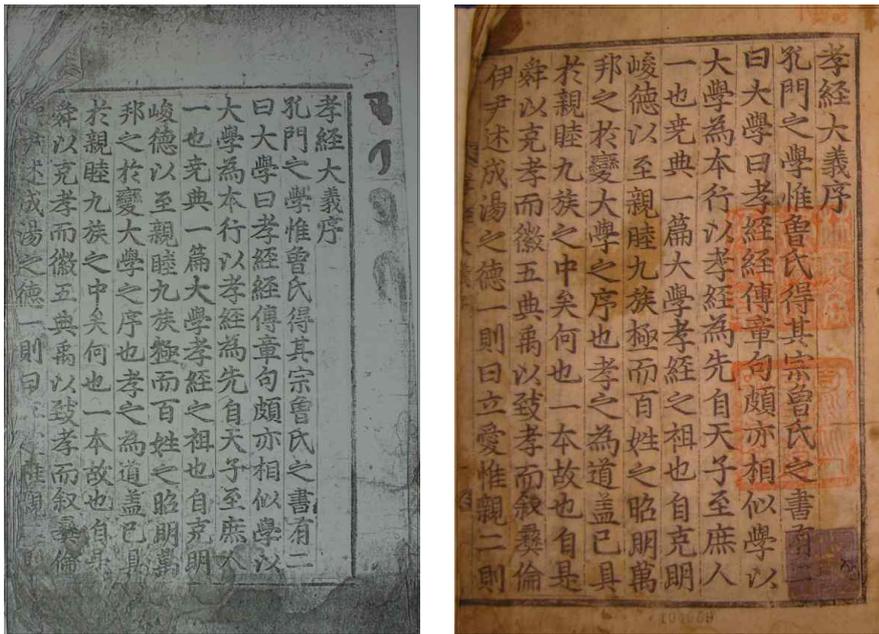


그림10-경오자체 훈련도감자본 『효경대의』(좌), 훈련도감자본의 번각본(우)

26) 『承政院日記』 인조 9년 신미(1631) 10월 10일(경술)

27) 『承政院日記』 인조 9년 신미(1631) 11월 19일(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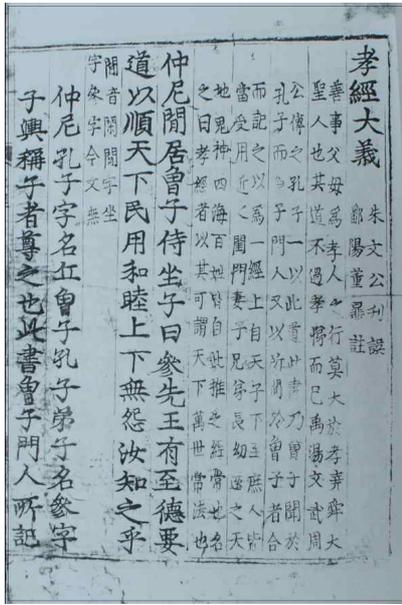


그림11-덧칠된 목활자본 『효경대의』

전체적으로 덧칠되어 있어 판본 확인이 어려우며, 판식은 사주쌍변, 반곽 23.5×17.2cm, 유계, 10행 17자, 주쌍행, 상하내향흑어미로 훈련도 감자본과는 차이가 있다(그림11 참조). 1604년(선조 37)에 평안도 관찰사 김신원(金信元)이 『효경대의』 15권을 활자로 인출한 기록<sup>28)</sup>이 있는데 이 책이 그 간본일 가능성도 있다.

### 3) 정유자본(丁酉字本) 계통

증자로 인쇄한 세 가지 계통 중에 정유자본 『효경대의』는 정조 연간에 제작된 금속활자인 정유자로 인출되었다. 이를 저본으로 1874년(고종 11)에는 원자의 교육을 맡아보던 보양청(輔養廳)<sup>29)</sup>에서, 1879년(고종 16)에는 세자의 교육을 담당했던 시장원(侍講院)<sup>30)</sup>에서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이들은 모두 10행 18자의 판식을 보인다.

언해를 필사하여 덧붙인 『효경대의』는 이 판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서미(書尾)나 서각(書脚)에 언해를 필사하여 덧붙인 자료는 규장각 소장본과 국립도서관 일산문고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산문고본은 일산 김두중(金斗鍾)의 문고로 구한말 이후 유명한 서화수집가였던 이병직(李秉直)의 소장인이 날인되어 있다. 이 책의 특징은 본문 속에 약체구결을 필사하고 더하여 경(經)의 정문(正文)에 필사한 언해를 덧붙여놓은 것이

표1-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효경언해』, 『효경대의』 책판 현황

서명	간지	간년	간기	판수	번호
효경언해	[춘방]	[1879]	[己卯新刊]	13	규 143 등
효경대의	보양청	1874	甲戌	24	규 1053 등
	춘방	1879	己卯新刊	32	규 1051 등

28) 『宣祖實錄』 37년 5월 18일(戊辰).

29) 刊記: 甲戌(1874)輔養廳重刊.

30) 刊記: 己卯(1879)新刊春坊藏板.

다. 특히 나이 어린 세자에게는 기초 언어 교육과 함께 『효경』과 같은 가치 교육이 강조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숙종·경종·진종·장조·익종·헌종 등은 10세 미만에 세자에 책봉되었기 때문에 『효경』과 같은 교재가 반드시 진강(進講)되었다.

춘방장판본은 정유자본과 같은 10행 18자본으로 편제면에 “기묘신간 춘방장판(己卯新刊春坊藏板)” 간기를 새겼다. 춘방장판본의 1880년 7월 10일 『시강원책역소일기(侍講院冊役所日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相考 할 일, 지금世子宮에 들일冊子는 史略 第6, 第7卷 合 166張, 續史略 1冊 78張, 全韻玉篇 1秩 合 158張, 都合 402張으로 刊本으로 만든 板을 每 한 가미술당 열 장씩 소금물로 익힐 때 正時에 들어갈 것. 燒木(빨나무) 20丹, 소금 한 말과 書傳 武成篇 洛誥篇 合 13張의 활자로 印出할 때 所用되는 初·再·三紙와 千字文, 童蒙先習, 通鑑, 史略, 續史畧, 七書, 孝經, 小學, 禮記, 春秋, 綱目, 全韻玉篇 합쳐 5,125冊의 冊面張 세 곳에 官印을 찍을 때에 所用되는 印靑, 唐靑花墨 등의 物力을 정히 헤아려서 마련하여 급히 輸送해 오는 것이 마땅히 할 일이다. 戶曹<sup>31)</sup>…….

이 기록으로 세자궁에 들인 책자와 그 장수, 그리고 목관의 보존을 위하여 소금물에 찌는 과정 및 관인을 날인한 내용까지 살필 수 있다. 또한 같은 해(1880년) 8월 15일에도 하교하기를 “세자가 볼 새로 만든 효경과 구건(舊件) 효경을 모두 들이라. 신건(新件) 효경 1책과 구건 효경 10책을 안으로 들이라” 하고 또 “신건 효경 대주(大註)가 토(吐)가 없으니 속히 토를 달아 들이라” 고<sup>32)</sup> 하여 토를 달지 않은 새로 편찬한 『효경』에 토를 달게 하여 세자의 강학용으로 썼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효경언해』 1종, 『효경대의』 2종의

31) 『侍講院冊役所日記』 庚辰 7月 10日(丙子). “…… 爲相考事今此世子宮內入冊子史略第六第七卷合一百六十六張續史略一冊七十八張全韻玉篇一秩合一百五十八張都合四百二張刊本自作板每一釜十張式塩水熟正時所入燒木二十丹塩一斗及書傳武成篇洛誥篇合十三張鑄字印出時所用初再三見紙與千字童蒙先習通鑑史略續史畧七書孝經小學禮記春秋綱目全韻玉篇合五千一百二十五冊面張三處踏條所用印靑唐靑花墨等物力定計土磨鍊星火輸送之地宜當 向事 戶曹…….”

32) 『侍講院冊役所日記』 庚辰 8月 15日(辛亥). “…… 以司謁口傳下教曰睿覽件新造孝經舊件孝經沒數以入新件孝經一冊舊件孝經十冊內入 仍以司謁口傳下教曰新件孝經大註無吐即速懸入…….”

표2-재전당서포 발행의 『효경언해』, 『효경대의』 간본

서명	발행지	발행호	년도	간기	책수
孝經大義	태인		1803	崇禎紀元後三癸亥泰仁田 以采朴致維梓	1책
	달성	在田堂書鋪	1913		1책
	달성	在田堂書鋪	1916		1책
	달성	在田堂書鋪		崇禎紀元後 三癸亥 十月日 泰仁 田以采朴致維梓	1책
	달성		1913		1책
孝經諺解	달성	在田堂書鋪	1913		1책
	달성	在田堂書鋪刊	未詳		1책
	달성		1916		1책

책판 실물이 소장되어 있다. 빠짐없이 모두 남아 있으며 『효경언해』는 간지·간년 미상으로 되어 있지만 1879년의 춘방장판본의 책판으로 추정된다. 『효경대의』는 1874년 보양청, 1879년 시장원에서 간행한 것이다.

#### 4) 대구방각본 및 기타

일제 강점기 때 대구의 재전당서포(在田當書鋪)에서 발행한 『효경대의』와 『효경언해』, 그리고 서울의 천일서관 간본이 전통인쇄방식으로는 거의 마지막에 인쇄된 책으로 파악된다. 재전당서포본은 태인방각본을 가져다가 다시 판매한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판각한 것도 드러난다. 재전당서포 외에도 방각본으로 『효경대의』 등을 판매한 출판사로는 박문서관(博文書館)(1917년), 천일서관(天一書館)(1919년) 등을 들 수 있다.

### III. 『효경간오』, 『효경대의』의 구성체제와 내용 비교

『효경간오』의 구성체제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기존의 비교연구에서<sup>33)</sup> 상당 부분이 알려졌다. 현재 남아 있는 간본으로서 후대에 지속적으로 간행된 전주판 『효경간오』를 중심에 두고 체제의 배경과 내용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3과 같다. 초기 인본의 전체적인 구성은 경과 전으로 구성되고 『고문효경』의 19장은 규문장(閨門章)으로, 『효경정의』에 없었던 문장이다. 『효경간오』의 전(傳)12장은 『효경대의』의 전12장과 같다. 전주판 『효경간오』는 『금문효경』에 비해 몇 개의 한자가 추가되기는

33) 정호훈, 앞의 논문.

표3-『효경간오』, 『효경대의』의 구성체제 비교

書名 章	『古文孝經』	『今文孝經』	전주판 『孝經刊誤』	『朱子大全』 중 『孝經刊誤』	『孝經大義』	十三經注疏 『孝經正義』
1	開宗明義章	1. 開宗明義章	經1章	經1章	經1章	1. 開宗明義章
2	天子章	2. 天子章				2. 天子章
3	諸侯章	3. 諸侯章				3. 諸侯章
4	卿大夫章	4. 卿大夫章				4. 卿大夫章
5	士章	5. 士章				5. 士章
6	庶人章	6. 庶人章				6. 庶人章
7	孝乎章					
8	三才章	7. 三才章	傳3章	傳3章	傳3章	7. 三才章
9	孝治章	8. 孝治章	傳4章	傳4章	傳4章	8. 孝治章
10	聖治章	9. 聖治章	傳5章	傳5章	傳5章	9. 聖治章
11	父母生續章		傳6章	傳6章	傳6章	
12	孝優劣章					
13	紀孝行章	10. 紀孝行章	傳7章	傳7章	傳7章	10. 紀孝行章
14	五刑章	11. 五刑章	傳8章	傳8章	傳8章	11. 五刑章
15	廣要道章	12. 廣要道章	傳2章	傳2章	傳2章	12. 廣要道章
16	廣至德章	13. 廣至德章	傳首章	傳首章	傳首章	13. 廣至德章
17	感應章	16. 感應章	傳10章	傳10章	傳10章	16. 感應章
18	廣揚名章	14. 廣揚名章	傳11章	傳11章	傳11章	14. 廣揚名章
19	閨門章	없음	傳12章	傳12章	傳12章	없음
20	諫諍章	15. 諫諍章	傳13章	傳13章	傳13章	15. 諫諍章
21	事君章	17. 事君章	傳9章	傳9章	傳9章	17. 事君章
22	喪親章	18. 喪親章	傳14章	傳14章	傳14章	18. 喪親章

하였으나, 『금문효경』에 있던 시경, 서경에서 인용된 구절을 생략하여 그 양의 차이가 큰 편이다. 전주판 『효경간오』의 정문(正文)은 『효경대의』의 정문이나 『주자대전』 중에 있는 『효경간오』와 거의 차이가 없다.

판본상으로 보면 경서자본 『효경대의』 이후로 동정의 주석이 쓰인 것이다. 그전에는 주자의 『효경간오』가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주판 『효경간오』, 『주자대전』 중 『효경간오』, 『효경대의』등 세 가지 간본의 본문 내용을 비교해보면 글자의 출입이나 바뀜이 있으나, 통용되는 글자를 사용하여 문 의(文意)가 달라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글자 출입의 경우 예를 들면, 전주판 『효경간오』 제1장에 ‘女’가 『주자대전』 내의 『효경간오』나 『효경대의』에서는 ‘汝’로 나타난다. 『효경대의』의 ‘辟’은 다른 간본에서 避로 나타난다. 종결어조사인 ‘也’가 『주자대전』의 『효경간오』나 『효경대의』에는 수록되어 있으나, 전주판 『효경간오』에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다른 장(章)에서도

유사한 경우가 많다. 또한 전주판 『효경간오』의 ‘言’ 이 다른 판본에서는 道 로 나타나고 전주판 『효경간오』의 ‘以下’ 가 다른 판본에서는 以下 로 ‘於’ 가 ‘于’ 로 나타난다.

전수장(傳首章)과 전2장에서는 전주판 『효경간오』의 ‘弟’ 가 다른 판본에서는 弟 로 나타난다. 전4장에서는 전주판 『효경간오』의 ‘悔’ 가 다른 판본에서는 ‘失’ 로 글자가 바뀌어 기재되었다. 전6장은 『고문효경』에서 부모생속장(父母生續章), 효우열장(孝優劣章)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한 장으로 합친 것인데, 이때 전주판 『효경간오』는 연결어로 ‘故’ 를, 『주자대전』은 ‘子曰’ 을 사용하였고, 『효경대의』는 연결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전7장에서는 전주판 『효경간오』와 『주자대전』에 쓰여진 ‘此’ 가 『효경간오』에서는 생략되었다.

전9장에서는 전주판 『효경간오』에 쓰인 ‘也’ 가 다른 판본에는 생략되기도 하고 전주판 『효경간오』의 ‘云’ 이 다른 판본에서는 ‘曰’ 로 기재되었다. 전10장에서는 『주자대전』의 ‘室’ 가 다른 판본에서는 室 로, 전주판 『효경간오』의 親 이 다른 책에서는 親 으로, 弟 가 弟 로, 於 가 于 로 바뀌어 나타난다. 전11장에서는 전2장과 마찬가지로 전주판 『효경간오』의 ‘弟’ 가 다른 책에서는 弟 로 나타난다. 전주판 『효경간오』와 『주자대전』의 是故 가 『효경간오』에서 是以 로 나타난다. 전12장 전주판 『효경간오』의 已乎 가 다른 판본에서는 矣乎 로 나타난다. 전13장 전주판 『효경간오』에는 다른 판본에서 나타나지 않는 ‘言之不通也’ 의 5글자가 더 수록되어 있다. 또 전주판 『효경간오』와 『주자대전』의 ‘弗’ 이 『효경간오』에는 ‘不’ 로 바뀌어 있고 전주판 『효경간오』에는 ‘又’ 가 생략되어 있으나, 『주자대전』과 『효경간오』에는 나타난다.

전5장, 전8장, 전14장에는 차이 나는 글자가 없다. 이를 표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4와 같다. 표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은 서적 상호간의 글자 출입이나 다른 글자가 쓰인 경우이다. 『주자대전』 중 『효경간오』에서 밑줄로 표시한 부분은 『주자대전』의 주석에서도 드러나듯이 문맥에 맞지 않아 삭제하려 했던 부분이다. 실제 『효경간오』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삭제하여 기재한 듯하다.

34) 『欽定四庫全書』에 수록된 「孝經刊誤」를 저본으로 하였다.

35) 『朱子大全』「孝經刊誤」經1章 注, …… 後人妄分以爲六七章, (今文作六章, 古文作七章.)

표4-전주판 『孝經刊誤』, 『朱子大全』 중 『孝經刊誤』, 『孝經大義』의 본문 내용 비교

書名 章	全州版 『孝經刊誤』	『朱子大全』 중 『孝經刊誤』	『孝經大義』
經1章	<p>仲尼閑居, 曾子侍坐, 子曰: '參, 先王有至德要道, 以順天下, 民用和睦, 上下無怨, 女知之乎?' 曾子避席曰: '參不敏, 何足以知之?' 子曰: '夫孝, 德之本也, 教之所由生. 復坐, 吾語女.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 夫孝始於事親, 中於事君, 終於立身.'</p> <p>愛親者不敢惡於人, 敬親者不敢慢於人. 愛敬盡於事親, 而德教加於百姓, 刑于四海. 蓋天子之孝.</p> <p>在上不驕, 高而不危, 制節謹度, 滿而不溢. 高而不危, 所以長守貴; 滿而不溢, 所以長守富. 富貴不離其身, 然後能保其社稷而和其民人. 蓋諸侯之孝.</p> <p>非先王之法服不敢服, 非先王之法言不敢言, 非先王之德行不敢行. 是故非法不言, 非道不行, 口無擇言, 身無擇行. 言滿天下無口過, 行滿天下無怨惡. 三者備矣, 然後能守其宗廟. 蓋卿大夫之孝也.</p> <p>資於事父以事母而愛同, 資於事父以事君而敬同. 故母取其愛而君取其敬, 兼之者父也. 故以孝事君則忠, 以敬事長則順. 忠順不失, 以事其上, 然後能保其爵祿而守其祭祀. 蓋士之孝也.</p> <p>用天之道, 因地之利, 謹身節用, 以養父母, 此庶人之孝也. 故自天子以下至於庶人, 孝無終始, 而患不及者未之有也.<sup>7</sup></p>	<p>仲尼閑居, 曾子侍坐, 子曰: '參, 先王有至德要道, 以順天下, 民用和睦, 上下無怨, 汝知之乎?' 曾子避席曰: '參不敏, 何足以知之?' 子曰: '夫孝, 德之本也, 教之所由生. 復坐, 吾語汝.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 夫孝始於事親, 中於事君, 終於立身. 大雅云: 『毋念爾祖, 聿脩厥德.』</p> <p>子曰, 愛親者不敢惡於人, 敬親者不敢慢於人. 愛敬盡於事親, 而德教加於百姓, 刑于四海. 蓋天子之孝. 呂刑云: 『一人有慶, 兆民賴之.』</p> <p>在上不驕, 高而不危, 制節謹度, 滿而不溢. 高而不危, 所以長守貴; 滿而不溢, 所以長守富. 富貴不離其身, 然後能保其社稷而和其民人. 蓋諸侯之孝. 詩云: 『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冰.』</p> <p>非先王之法服不敢服, 非先王之法言不敢道, 非先王之德行不敢行. 是故非法不言, 非道不行, 口無擇言, 身無擇行. 言滿天下無口過, 行滿天下無怨惡. 三者備矣, 然後能守其宗廟. 蓋卿大夫之孝也. 詩云: 『夙夜匪懈, 以事一人.』</p> <p>資於事父以事母而愛同, 資於事父以事君而敬同. 故母取其愛而君取其敬, 兼之者父也. 故以孝事君則忠, 以敬事長則順. 忠順不失, 以事其上, 然後能保其爵祿而守其祭祀. 蓋士之孝也. 詩云: 『夙興夜寐, 毋忝爾所生.』</p> <p>子曰, 用天之道, 因地之利, 謹身節用, 以養父母, 此庶人之孝也. 故自天子已下至于庶人, 孝無終始, 而患不及者未之有也.<sup>35)</sup></p>	<p>仲尼閑居, 曾子侍坐, 子曰: '參, 先王有至德要道, 以順天下, 民用和睦, 上下無怨, 汝知之乎?' 曾子辟席曰: '參不敏, 何足以知之?' 子曰: '夫孝, 德之本也, 教之所由生. 復坐, 吾語汝.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 夫孝始於事親, 中於事君, 終於立身.'</p> <p>愛親者不敢惡於人, 敬親者不敢慢於人. 愛敬盡於事親, 而德教加於百姓, 刑于四海. 蓋天子之孝.</p> <p>在上不驕, 高而不危, 制節謹度, 滿而不溢. 高而不危, 所以長守貴; 滿而不溢, 所以長守富. 富貴不離其身, 然後能保其社稷而和其民人. 蓋諸侯之孝.</p> <p>非先王之法服不敢服, 非先王之法言不敢道, 非先王之德行不敢行. 是故非法不言, 非道不行, 口無擇言, 身無擇行. 言滿天下無口過, 行滿天下無怨惡. 三者備矣, 然後能守其宗廟. 蓋卿大夫之孝也.</p> <p>資於事父以事母而愛同, 資於事父以事君而敬同. 故母取其愛而君取其敬, 兼之者父也. 故以孝事君則忠, 以敬事長則順. 忠順不失, 以事其上, 然後能保其爵祿而守其祭祀. 蓋士之孝也.</p> <p>用天之道, 因地之利, 謹身節用, 以養父母, 此庶人之孝也. 故自天子已下至于庶人, 孝無終始, 而患不及者未之有也.<sup>7</sup></p>
傳首章	<p>子曰: '君子之教以孝也, 非家至而日見之也. 教以孝, 所以敬天下之為人父者. 教以弟, 所以敬天下之為人兄者. 教以臣, 所以敬天下之為人君者. 詩云: 『愷悌君子, 民之父母.』非至德其孰能順民如此其大者乎?'</p>	<p>子曰: '君子之教以孝也, 非家至而日見之也. 教以孝, 所以敬天下之為人父者. 教以悌, 所以敬天下之為人兄者. 教以臣, 所以敬天下之為人君者. 詩云: 『愷悌君子, 民之父母.』非至德其孰能順民如此其大者乎?'</p>	<p>子曰: '君子之教以孝也, 非家至而日見之也. 教以孝, 所以敬天下之為人父者. 教以悌, 所以敬天下之為人兄者. 教以臣, 所以敬天下之為人君者. 詩云: 『愷悌君子, 民之父母.』非至德其孰能順民如此其大者乎?'</p>

書名 章	全州版 『孝經刊誤』	『朱子大全』 중 『孝經刊誤』	『孝經大義』
傳2章	子曰: '教民親愛莫善於孝, 教民禮順莫善於弟, 移風易俗莫善於樂, 安上治民莫善於禮. 禮者, 敬而已矣.'	子曰: '教民親愛莫善於孝, 教民禮順莫善於弟, 移風易俗莫善於樂, 安上治民莫善於禮. 禮者, 敬而已矣.'	子曰: '教民親愛莫善於孝, 教民禮順莫善於悌, 移風易俗莫善於樂, 安上治民莫善於禮. 禮者, 敬而已矣.'
傳3章	曾子曰: '[...] 是以其教不肅而成, 其政不嚴而治.'	曾子曰: '[...] 是以其教不肅而成, 其政不嚴而治. 先王見教之可以化民也, 是故先之以博愛而民莫遺其親, 陳之以德義而民興行. 先之以敬讓而民不爭, 導之以禮樂而民和睦, 示之以好惡而民知禁. 詩云: 『赫赫師尹, 民具爾瞻.』 <sup>36)</sup>	曾子曰: '[...] 是以其教不肅而成, 其政不嚴而治.'
傳4章	子曰: 『昔者明王之以孝治天下也, [...] 治家者不敢侮於臣妾, 而況於妻子乎? 故得人之歡心以事其親 [...]』	子曰: 『昔者明王之以孝治天下也, [...] 治家者不敢失於臣妾, 而況於妻子乎? 故得人之歡心以事其親 [...]』	子曰: 『昔者明王之以孝治天下也 [...] 治家者不敢失於臣妾, 而況於妻子乎? 故得人之歡心以事其親 [...]』
傳6章	子曰: '父子之道天性, 君臣之義, 父母生之, 續莫大焉. 君親臨之, 厚莫重焉.' 故不愛其親而愛他人者謂之悖德, 不敬其親而敬他人者謂之悖禮.	子曰: '父子之道天性, 君臣之義, 父母生之, 續莫大焉. 君親臨之, 厚莫重焉.' 子曰: '不愛其親而愛他人者謂之悖德, 不敬其親而敬他人者謂之悖禮. 以順則逆, 民無則焉. 不在於善, 皆在於凶. 德雖得之, 君子所不貴. 君子則不然, 言斯可道, 行斯可樂, 德義可尊, 作事可法, 容止可觀, 進退可度, 以臨其民, 是以其民畏而愛之, 則而象之, 故能成其德教而行政令. 詩云: 『淑人君子, 其儀不忒.』 <sup>37)</sup>	子曰: '父子之道天性, 君臣之義, 父母生之, 續莫大焉. 君親臨之, 厚莫重焉.' '不愛其親而愛他人者謂之悖德, 不敬其親而敬他人者謂之悖禮.'
傳7章	子曰: '孝子之事親, 居則致其敬 [...] 在醜而爭則兵. 此三者不除, 雖日用三牲之養, 猶爲不孝也.'	子曰: '孝子之事親, 居則致其敬 [...] 在醜而爭則兵. 此三者不除, 雖日用三牲之養, 猶爲不孝也.'	子曰: '孝子之事親, 居則致其敬 [...] 在醜而爭則兵. 三者不除, 雖日用三牲之養, 猶爲不孝也.'
傳9章	子曰: '君子事上也, 進思盡忠, 退思補過, 將順其美, 匡救其惡, 故上下能相親. 詩云: 『心乎愛矣, 遐不謂矣. 中心藏之, 何日忘之?』'	子曰: '君子事上也, 進思盡忠, 退思補過, 將順其美, 匡救其惡, 故上下能相親. 詩曰: 『心乎愛矣, 遐不謂矣. 中心藏之, 何日忘之?』'	子曰: '君子事上, 進思盡忠, 退思補過, 將順其美, 匡救其惡, 故上下能相親. 詩曰: 『心乎愛矣, 遐不謂矣. 中心藏之, 何日忘之?』'
傳10章	子曰: '昔者明王事父孝, 故事天明; 事母孝, 故事地察. 長幼順, 故上下治. 天地明察, 神明彰矣. 故雖天子, 必有尊也, 言有父也. 必有先也, 言有兄也. 宗廟致敬, 不忘親也. 修身慎行, 恐辱親也. 宗廟致敬, 鬼神著矣. 孝悌之至, 通於神明, 光於四海, 無所不通. 詩云: 『自西自東, 自南自北, 無思不服.』'	子曰: '昔者明王事父孝, 故事天明; 事母孝, 故事地察. 長幼順, 故上下治. 天地明察, 神明彰矣. 故雖天子, 必有尊也, 言有父也. 必有先也, 言有兄也. 宗廟致敬, 不忘親也. 修身慎行, 恐辱先也. 宗廟致敬, 鬼神著矣. 孝悌之至, 通於神明, 光于四海, 無所不通. 詩云: 『自西自東, 自南自北, 無思不服.』'	子曰: '昔者明王事父孝, 故事天明; 事母孝, 故事地察. 長幼順, 故上下治. 天地明察, 神明彰矣. 故雖天子, 必有尊也, 言有父也. 必有先也, 言有兄也. 宗廟致敬, 不忘親也. 修身慎行, 恐辱先也. 宗廟致敬, 鬼神著矣. 孝悌之至, 通於神明, 光于四海, 無所不通. 詩云: 『自西自東, 自南自北, 無思不服.』'
傳11章	子曰: '君子之事親孝, 故忠可移於君. 事兄弟, 故順可移於長. 居家理, 故治可移於官. 是故行成於內而名立於後世矣.'	子曰: '君子之事親孝, 故忠可移於君. 事兄弟, 故順可移於長. 居家理, 故治可移於官. 是故行成於內而名立於後世矣.'	子曰: '君子之事親孝, 故忠可移於君. 事兄弟, 故順可移於長. 居家理, 故治可移於官. 是以行成於內而名立於後世矣.'

書名 章	全州版 『孝經刊誤』	『朱子大全』 중 『孝經刊誤』	『孝經大義』
傳12章	子曰: '閨門之內, 具禮已乎. 嚴父嚴兄, 妻子臣妾, 猶百姓徒役也'	子曰: '閨門之內, 具禮矣乎. 嚴父嚴兄, 妻子臣妾, 猶百姓徒役也'	子曰: '閨門之內, 具禮矣乎. 嚴父嚴兄, 妻子臣妾, 猶百姓徒役也'
傳13章	曾子曰: '若夫慈愛恭敬, 安親揚名, 參聞命矣. 敢問從父之令, 可謂孝乎?' 子曰: '是何言與! 是何言與! 言之不通也. 昔者天子有爭臣七人, 雖無道, 不失其夫下. 諸侯有爭臣五人, 雖無道, 不失其國. 大夫有爭臣三人, 雖無道, 不失其家. 士有爭友, 則身不離於令名; 父有爭子, 則身不陷於不義. 故當不義, 則子不可以弗爭於父, 臣不可以弗爭於君. 故當不義則爭之, 從父之令, 焉得爲孝乎?'	曾子曰: '若夫慈愛恭敬, 安親揚名, 參聞命矣. 敢問從父之令, 可謂孝乎?' 子曰: '是何言與! 是何言與! 昔者天子有爭臣七人, 雖無道, 不失其夫下. 諸侯有爭臣五人, 雖無道, 不失其國. 大夫有爭臣三人, 雖無道, 不失其家. 士有爭友, 則身不離於令名; 父有爭子, 則身不陷於不義. 故當不義, 則子不可以弗爭於父, 臣不可以弗爭於君. 故當不義則爭之, 從父之令, 又焉得爲孝乎?'	曾子曰: '若夫慈愛恭敬, 安親揚名, 參聞命矣. 敢問從父之令, 可謂孝乎?' 子曰: '是何言與! 是何言與! 昔者天子有爭臣七人, 雖無道, 不失其夫下. 諸侯有爭臣五人, 雖無道, 不失其國. 大夫有爭臣三人, 雖無道, 不失其家. 士有爭友, 則身不離於令名; 父有爭子, 則身不陷於不義. 故當不義, 則子不可以不爭於父, 臣不可以不爭於君. 故當不義則爭之, 從父之令, 又焉得爲孝乎?'

#### IV. 『효경언해』의 간행본

##### 1. 을해자체경서자본

『효경언해』의 언해문은 주희의 『효경간오』 본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면서 많이 알려진 간본이 일본 존경각 소장 장운익(張雲翼) 내사본(內賜本)이다. 을해자체경서자본이며 앞서 언급한 『효경대의』와 합본 1책으로 된 것이다. 언해의 구성은 경1장과 전14장의 본문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대의와 주석은 모두 생략하고 있다. 언해 방식은 경과 전의 본문에 한글로 독음과 구결을 달고 이어 언해문을 실었다.

又增 '子曰' 及引詩書之文以雜乎其間, 使其文意分斷間隔而讀者不復得見聖言全體大義, 爲害不細. 故今定此六七章者合爲一章, 而刪去 '子曰' 者二, 引書者一, 引詩者四, 凡六十一字, 以復經文之舊 …….

- 36) 『朱子大全』『孝經刊誤』傳3章 注, 其曰「先王見教之可以化民」, 又與上文不相屬. 故溫公改「教」爲「孝」, 乃得相通. 而下文所謂德義·敬讓·禮樂·好惡者却不相應, 疑亦裂取他書之成文而強加裝綴, 以爲孔子·曾子之問答, 但未見其所出耳. 然其前段文雖非是, 而理猶可通, 存之無害. 至於後段, 則文既可疑, 而謂聖人見孝可以化民而後以身先之, 於理又已悖矣. 況先之以博愛亦非立愛惟親之序, 若之何而能使民不遺其親耶? 其所引詩亦不親切, 今定「先王見教」以下凡六十九字並刪去.
- 37) 『朱子大全』『孝經刊誤』傳6章 注, 但「以順則逆」以下則又雜取左傳所載季文子·北宮文子之言, 與此上文既不相應, 而彼此得失又如前章所論子產之語. 今刪去凡九十字.



그림12-1666년(현종 7) 낭선군 이우에게 반사한 『효경언해』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

을해자체경서자 한문본 『효경대의』와 한글본 『효경언해』는 함께 간행되었지만 별도의 책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이 책을 처음 소개할 때<sup>38)</sup> 한글자료를 중심으로 영인하면서 내사기, 서문, 지문(識文), 언해본문(諺解本文), 발문 등의 내용만 소개하였고 이후에도 이 영인자료가 재영인되면서 원래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sup>39)</sup>

## 2. 목관본 1666년(현종 7) 반사본(頒賜本)

1666년(현종 7) 10월 23일 반사한 목관본으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중에는 정태화(鄭太和, 1602-1673)(청구기호 古 1328-1), 송준길(宋俊吉, 1606-1672)(청구기호 古1328-2)에게 반사한 책이 남아 있다. 사주쌍변, 10행 19자, 상하내향혼입화문어미의 판식을 지니는 이 책은 같은 날 낭선군(朗善君) 이우(李俁)에게 반사한 책(계명대 소장)도 전해진다(그

38) 田川孝三, 「庚辰字本孝經諺解と小學諺解」, 『朝鮮學報』 제27집(1963. 4).

39) 특별한 경우, 처음 간행한 이후에 별도로 간행되어 장책하거나 함께 간행한 후에 별도로 장책하는 경우도 있다. 목록상으로 판단해보면 앞서서 을해자체경서자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새롭게 추가할 수 있는 성암고서박물관 소장의 『효경대의』 1책에 『효경언해』는 빠진 것으로 보인다.

림12 참조). 3종이 모두 같은 날짜에 반사되었고 내사기 양식, 판본, 형태적 특징 등이 동일하다. 이후에 『효경언해』 목판본으로 남은 것은 대부분 이 판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장서각 소장의 『효경언해』(청구기호 K1-140)과 (A8 5A)는 이 책과 동일한 판본이며, 장서각 소장의 또 다른 『효경언해』(청구기호 A8 5B)는 1666년 간본을 바탕으로 후대에 다시 새긴 것으로 보인다.

## V. 맺음말

공자가 그의 제자 증자와 더불어 문답한 것 중에 효도에 관한 것을 송나라 주희가 간오(刊誤)한 것이 『효경간오』이며, 후에 이를 동정이 주해한 책을 바탕으로 명나라 서관이 간행한 판본을 『효경대의』라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널리 간행되고 영향을 준 『효경간오』, 『효경언해』, 『효경대의』에 대하여 서지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효경간오』, 『효경언해』, 『효경대의』 등 세 가지 유형 서적의 간행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실물자료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록에 나타나는 간행 상황과 일치하거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실물자료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글에서는 기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판본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판각시기 및 계통에 관해 검토하였다. 특히 서지학적인 몇 가지 쟁점으로 『효경간오』의 국내간행, 일본에 소장된 『효경언해』 활자본에 관한 검토, 장서각과 규장각에 소장된 한글필사의 언해가 달린 『효경대의』, 춘방간본 『효경대의』, 책판으로 남은 『효경대의』 등을 살펴보았다.

조선시대에 주로 유통된 『효경』은 주희의 『효경간오』와 이를 바탕으로 한 동정의 『효경대의』이다. 주석이 있는 기존 『효경대의』 연구에 비해 『효경간오』의 조선전기 간행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지적 연구가 부족하였다. 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그 유형을 가려 뽑아도 다양한 간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더 진전된 논의를 위해서는 실물자료를 좀 더 파악하는 노력과 전체적인 소장 현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 글이 효경과 관련된 해제나 연구에서 『효경』과 그 언해본의 국내 간본 현황과 계통을 파악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國立文化財研究所 編, 『海外典籍文化財調査目録 -日本 尊經閣文庫 所藏 韓國本-』. 國立文化財研究所, 2006.
-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探求堂, 1966.
- 김용옥, 『효경 한글역주』. 통나무, 2009.
- 옥영정, 「비소설 한문방각본 간행에 대한 서지적 고찰」. 『열상고전연구』 제31집, 2010. 6, 213-254쪽.
- 윤병태, 「孝經大義 大字考」. 『도협월보』 v. 15 no. 10, 1974. 10, 12-17쪽.
- 李仁榮, 『淸芬室書目』. 寶蓮閣, 1968.
- 이재영, 「조선시대 효경의 편찬과 간행」. 『書誌學研究』 32집, 2008. 12.
- 정승혜 · 남권희 · 양오진, 「원간노걸대와 직해효경의 언어」. 『국어사자료연구』 제2호, 2001. 2.
- 정호훈, 「朱子 『孝經刊誤』와 그 성격」. 『동방학지』 116, 2002, 80-81쪽.
- 최경훈, 「조선전기 주자저술의 간행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42, 2009. 6.
- 千惠鳳, 『韓國書誌學』. 민음사, 1993.
- 宮紀子, 『モンゴル時代の出版文化』.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2006.
- 田川孝三, 「庚辰字本孝經諺解と小學諺解」. 『朝鮮學報』 제27집, 1963. 4.
- 국사편찬위원회(<http://history.go.kr/main/main.jsp>).
-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search/search01.jsp>).
-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main/main.jsp>).
-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 한국고전번역원(<http://www.itkc.or.kr/MAN/index.jsp>).
-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rcis>).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한국학중앙연구원)(<http://yoksa.aks.ac.kr/>).

## 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조선시대에 다양한 형태로 간행된 『효경간오』, 『효경언해』, 『효경대의』에 대하여 실물자료를 중심으로 서지학적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서적의 간행 흐름과 판본 계통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록에 나타나는 간행 상황과 일치하거나 간기(刊記)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실물자료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판본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표적 판본을 소개함으로써 『효경』 관련 간본의 판각시기 및 계통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특히 서지학적인 몇 가지 내용으로 『효경간오』의 국내간행, 일본에 소장된 『효경언해』 활자본에 관한 검토, 장서각과 규장각에 소장된 한글필사의 언해가 달린 『효경대의』, 춘방간본 『효경대의』, 책판으로 남은 『효경대의』 등에 대한 검토는 이 분야의 연구를 위한 1차적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조선시대에 주로 유통된 『효경』은 주희의 『효경간오』와 이를 바탕으로 한 동정의 『효경대의』이다. 주석이 있는 기존 『효경대의』 연구에 비해 『효경간오』의 조선전기 간행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지적 연구가 부족하였다. 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그 유형을 가려 뽑아도 매우 다양한 유형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투고일 2012. 2. 6.

수정일 2012. 2. 10.

게재 확정일 2012. 2. 20.

주제어(keyword) 『효경』(*Hyogyǒng*), 『효경간오』(*Hyogyǒng kano*), 『효경언해』(*Hyogyǒng ōnhae*), 『효경대의』(*Hyogyǒng taŭi*), 고인쇄(pld print), 목판인쇄(wood print), 효경대자(*Hyogyǒng daejä*), 활자인쇄(letterpress)

